

# 생활물가 인상 도미노

통계청 2월 소비자물가

광주 1.1%·전남 1.4% ↑

외식 이어 식음료·생필품 등

전방위 인상에 서민경제 비상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가격인상이 외식업계에서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서민물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업계는 인건비와 임대료, 원재료 가격상승분을 반영하려면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6일 광주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은 최근 일부 도시락과 삼각김밥, 샌드위치 가격을 100~200원 인상했다.

GS25도 일부 도시락과 주먹밥 가격을 100~300원 인상했다. CU(씨유)도 최근 숯다리, 정오랑 등 오징어 관련 마른 안주류 제품을 최고 20%가량 인상했다.

중소 협력업체들의 가격 인상 요청이 지속되면서 이어져 협의를 통해 가격인상을 결정했다는 게 편의점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인건비 인상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외식업계는 다른 업종보다 빠르게 가격을 인상했다.

롯데리아와 맥도날드, KFC, 맘스터치, 버거킹 등 주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가 모두 가격을 올렸고, 농부부대찌개와 신전떡볶이, 김밥천국, 이삭토스트, 서브웨이 등도 가격이 올랐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광주지역 소비자물가는 1.1% 증가, 전남도는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식물가의 경우 광주와 전남이 각각 2.7%, 2.3% 늘어나는 등 외식업계의 물가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외식업계에서 시작된 가격인상이 식품을 넘어 이젠 생필품 등 전반적인 물가인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편의점 GS25는 이달부터 나뭇잎가래, 종이컵, 머린 같은 자체브랜드(PB) 비식품 상품 60여개 가격도 100~200원가량 인상했다.

여기에 제조업계도 가격인상에 동참하고 있다. 코카콜라음료는 지난해부터 콜라 등 17개 품목 출고가를 평균 4.8% 인상했다.

CJ제일제당도 이달 1일부터 핫반, 스팸, 냉동만두, 어묵 등의 가격을 6~9% 인상했다. 핫반(210g)은 1400원에서 1500원으로 7.1% 상승했고, 캔햄 2종과 냉동만

두 5종은 각각 평균 7.3%, 6.4% 올랐다.

이에 따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대형마트에서도 일부 품목에 한해 가격인상이 이뤄진 상황이다. 여기에 제조업계가 잇따라 출고가 인상을 선언하면서 1~2개월 뒤 대형마트의 상품가격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광주의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쌀값과 채소값 등 원재료 가격에 인건비가 오르면 업계들이 가격인상에 나서고 있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에 맞추려면 향후 2년간 올해 인상률(16.4%) 수준으로 인건비가 올라 물가인상과 그에 따른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해외자본 투자 반대 안 해”

김종호 금호타이어 회장 입장문

금호타이어가 해외매각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익명의 회사계시판 찬반투표에서는 찬성 의견도 나오고 있다. 노조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안팎의 분위기와 사뭇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종호 금호타이어 회장은 6일 ‘현 회사 상황에 대해 임직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해외자본 투자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회사 내부계시판에 노사 자구 안 진행 경과, 회사 경영상황, 법정관리, 해외자본투자에 대한 회사 입장 등을 설명하면서 “해외 건전 자본이 회사를 인수해 계속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해외 자본 투자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썼다.

그는 “중국법인을 포함한 조속한 경영 정상화, 향후 신규설비투자를 통한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을 위한 신속성 확보 및 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해서는 신규 자본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회장은 “세계 5위 타이어 메이커인 피렐리 타이어도 지난 2015년 중국 업체 캄 차이나에 인수됐으나 글로벌 업계 순위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김 회장의 글과 관련, “해외매각 찬성이면 당장 회사를 떠나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지을기자 dok2000@



## 보해 천년주 이름공모 뜨거운 관심

9일만에 2000여건 접수...23일까지 기한 연장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서 만들 제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새로 출시될 제품 이름 공모전에는 접수 9일만에 2000건에 육박하는 등 높은 열기를 보이고 있다.

보해양조는 오는 4월 출시를 목표로 신제품을 준비중이다. 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정도 천년을 기념해 전라도 정신과 전통을 담은 소주가 될 전망이다. 보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지역민과 함께 축하하고 지역에 어울리는 술을 만들기 위해 공

모전과 설문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 2월 시작된 천년 기념주 공모전에는 9일만에 2000건 가까운 아이디어가 모집됐다.

보해는 공모전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접수기한을 일주일 연장한 다. 이에 따라 네이밍과 브랜딩 공모전은 오는 23일까지 접수를 받고, 공모전 결과는 29일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보해가 만드는 천년 기념주에 대한 열기

는 오프라인에서도 뜨겁다.광주시청과 전남도청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보해가 만들 천년 기념주의 이름과 맛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해는 광주시·전남도와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는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날에는 광주시·전남도와 천년 기념 엠블럼 공동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서에 따라 보해는 천년 기념주가 판매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해 광주시와 전남도에 전달해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보해양조 이민규 마케팅본부장은 “시·도정 직원들은 물론 다양한 소비자들께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기념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11.41 (+36.35)	금리 (국고채 3년) 2.31% (0.00)
↑ 코스닥 859.21 (+14.21)	↓ 환율 (USD) 1076.10원 (-5.90)



## 광주은행 30년 장기 고객 사은행사

‘평생동행31+’ 이벤트... 해외여행·가전 등 경품 추첨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30년이상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평생동행31+’ 이벤트를 진행 한다.

오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30년 이상 장기거래하고 6개월 이내 영업점을 방문한 총 1만8609명의 고객이 대상자가 되며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광주은행과 거래하면서 겪은 비즈니스, 가족, 성장기 이야기 등을 사례로 제출하면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해 오는

5월 중 시상한다.

광주은행은 총 300명에게 해외여행, 가전제품, 백화점상품권 등 최대 250만원 상당의 사은품과 5만원 상당의 참여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랑과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함께 이룬 50년, 같이 나눌 100년이라는 슬로건을 실천하고 고객 성원에 감사하기 위한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본촌 힐스테이트 2단지’ 조합원 모집

1차 300명...생활 인프라 탁월

광주 ‘본촌2단지 현대지역주택조합’(가칭)은 6일부터 본촌동 일대에 들어설 ‘본촌동 힐스테이트 2단지’ 아파트 조합원(1차) 300명을 모집한다. <조감도>

본촌힐스테이트 2단지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전용면적 84㎡)로 8개동 508가구(지하 2층~지상 20층)가 들어선다. 본촌힐스테이트 2단지는 첨단·양산·일곡지구를 아우르면서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갖췄고 본촌·용두초와 용두중 등이 위치하는 등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빛과 대로를 이용해 상무지구로 쉽게 진출이 가능하고 서광주IC 등을 통한 고속도로 진출·출입도 수월하다는 게 조합측 설명이다. 2단지가 들어서면 이미 완공된 본촌 힐스테이트 1단지(834가구)와 연계, 1300여가구의 대단지가 조성된다.

시행은 ‘본촌2단지현대지역주택조합’이 맡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할 계획이다. 조합측은 지주 조합원 100여명이 현재 가입해 있어 1차 조합원 모집을 거쳐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승인을 받아 일반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조합측은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동·호수를 우선 선정할 수 있고 일반 분양에 비해 3000만~4000만원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자격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이전에 광주·전남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촌2단지 현대지역주택조합’ 사무실(광주 남구 월산로42-062-682-8230)로 하면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아모리이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 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대표전화 1588-2219